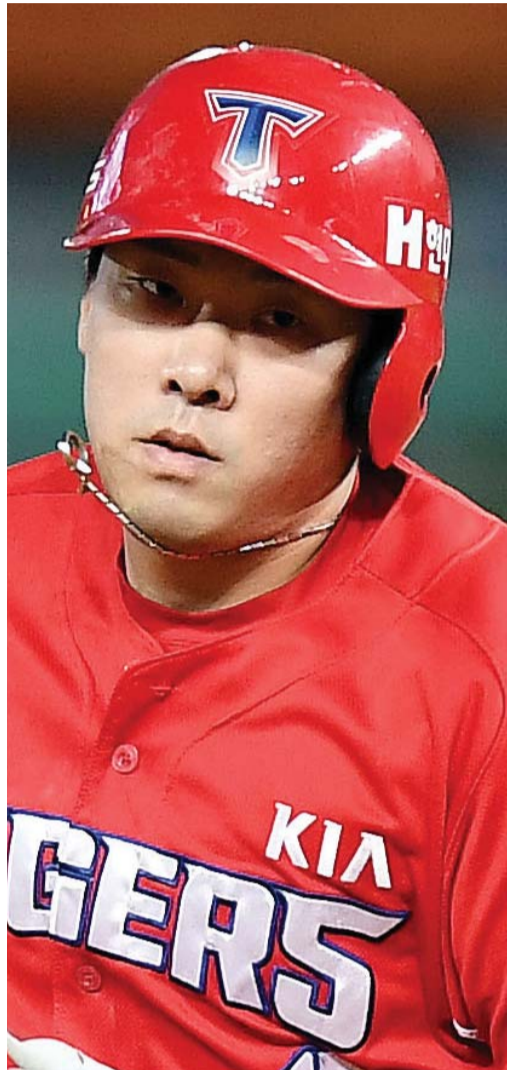


KIA, 두산 변진수 영입... 최대 관심은 김선빈·안치홍 거취



김선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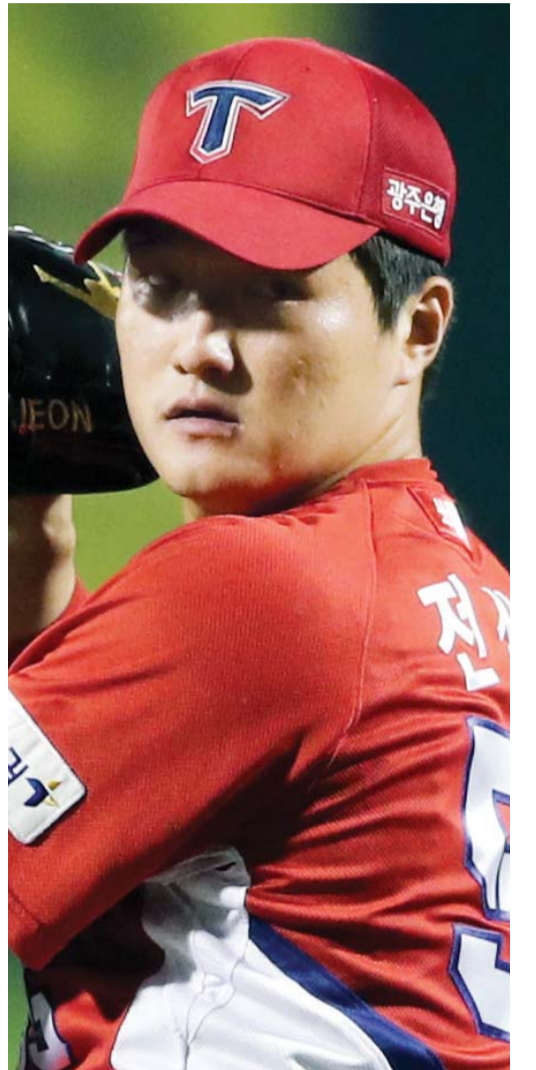
안치홍



양현중



이창진



전상현

‘마무리’ 김세현 SK행...박지훈·홍재호 등 8명 방출
김·안, 전력에 큰 영향...몇차례 실무협상 탐색전만

KIA 타이거즈의 선수단 재정비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마지막 퍼즐은 ‘FA 계약’이다. 2019 KBO 2차 드래프트가 20일 진행됐다. KIA는 2차 드래프트를 통해 두산에서 사이드암 변진수를 영입하고, ‘우승 멤버’ 김세현을 SK에 내줬다. 예상과는 다른 소폭 이동이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각 구단은 정규시즌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호선수 40명(FA 승인선수, 외국인 선수, 2018년 이후 입단한 1·2년 차 소속선수, 육성선수, 군보류선수, 육성군보류선수 제외)의 명단에서 지명권을 행사했다. 각 라운드별 구단 보상금은 1라운드 3억원, 2라운드 2억원, 3라운드 1억원으로 KIA는 1라운드에서 지명했다. 1라운드에서 변진수를 선택한 KIA는 2, 3라운드 지명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영입 후보’는 있었지만 앞서 다른 구단의 선택을 받았고, 이번 마무리훈련 등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내부 선수들을 우선 육성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KIA ‘유망주’들의 외부 유출도 예상됐지만, 검증된 선수를 위주로 2차 드래프트가 전개되면서 김세현만 팀을 바꾸게 됐다. 2차 드래프트와 함께 선수단 정리도 이뤄졌

다. KIA는 앞서 시즌 중 내야수 서동욱과 김주형, 투수 박경태의 웨이버 공시를 발표했다. 그리고 마무리훈련이 끝난 뒤 추가 개편 작업을 했다. 부상으로 재활을 해왔던 박지훈과 함께 유근상·이호현(이상 투수), 홍재호·문장은(내야수), 전은석·신재왕(이상 외야수)이 팀을 떠나게 됐다. 공익 근무 중인 정동현도 몸 상태 등의 이유로 방출이 결정됐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게 된 서동욱(퓨처스 타격 코치), 윤해진(잔류군 수비 코치), 이인형(전력분석코치)과 함께 이준호도 은퇴 후 스카우트로 활동하게 됐다. 선수단 개편 작업은 끝났지만, 아직 큰 변수가 남아있다. KIA 내야 구성의 주요 카드인 김선빈과 안치홍의 거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올 시즌이 끝난 뒤 두 사람은 FA 자격을 얻으면서 자유계약 시장에 나섰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올 시즌이었지만, 두 사람은 팀의 대표적인 선수로 꾸준히 활약해온 ‘프랜차이즈 스타’이다. 이들의 잔류 여부에 따라 공수에서 무게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FA 계약에 따



변진수

라 KIA의 선수단 구성도 달라진다. 지난 4일부터 모든 구단과 FA 계약이 가능해진 만큼 두 선수의 소식은 야구팬들의 관심이사가 됐다. 예상과 달리 KIA의 협상 테이블 열기는 아직 뜨겁지 않다. 몇 차례 탐색전을 벌인 김선빈과 안치홍 측은 새로운 협상 실무자와 각각 19일과 20일 다시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은 오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팀에 대한 애정’과 ‘팀에 필요한 선수’라는 서로의 마음은 확인했다. 초반 분위기는 뜨겁지 않지만 이화면 대표이사가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들이다. 시장 가치와 함께 두 선수의 앞선 공헌도 등도 생각해야 한다. 두 사람의 마음일지도 고려해서 배려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협상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2차 드래프트를 끝낸 KIA가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34년만에 ‘호랑이 신인왕’ 탄생할까

25일 KBO 시상식...KIA 전상현·이창진, LG 정우영과 경쟁
양현중, MVP 후보·평균자책점 1위...퓨처스리그 김유신 투수 2관왕

KBO리그 2019시즌을 빛낸 MVP와 신인왕이 25일 발표된다. KBO가 25일 오후 2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시상식’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MVP와 신인왕 주인공이 시상대에 오른다. KBO 리그와 퓨처스리그 개인 부문별 1위 선수와 우수심판원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다. KBO는 정규시즌 종료 후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언론사와 각 지역 언론사 취재기자를 대상으로 MVP와 신인왕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총 110명이 참여했다. 선수 개인별로 득표한 점수를 합산해 최고 점수를 획득한 선수가 수상자가 된다. 만약 2명 이상의 선수가 같은 최고 점수를 받을 경우, 1위 표를 더 많이 받은 선수가 최종 수상자로 결정된다. MVP는 트로피와 3370만원 상당의 기아자동차 K7 프리미어 차량, 신인상 수상자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을 받는다. 또 KBO 리그 부문별 1위 선수 및 우수 심판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진다. 퓨처스리그 부문별 1위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이 돌아간다. KIA에서는 2.29의 평균자책점을 찍은 양현중이 평균자책점 1위로 시상대에 오른다. 양현중은 MVP 후보로도 린드블럼(두산), 양의지(NC)와 각축을 벌인다. 전상현과 이창진은 LG 정우영과 신인왕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박찬호는 ‘도루왕’으로 행사에 참가하고, 상무에서 복귀 중인 김유신은 퓨처스 남부리그 다승(18승), 평균자책점(2.25) 부문 ‘2관왕’으로 시상식을 찾는다. 한편 야구팬들에게도 2019 KBO 시상식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입장권은 21일 오후 2시부터 KBO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300명(1인 2매)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경준 감독 ‘대행’ 떴고 전남 지휘봉

‘감독 대행’을 떴고 전경준 감독이 전남드래곤즈를 이끈다. 프로축구 전남드래곤즈가 20일 “전경준 감독대행을 2020년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전 감독은 7월 말 전남의 첫 외국인 감독이었던 파비아노가 경질된 뒤, 8월부터 감독대행으로 팀을 이끌었다. 어렵게 4강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전 감독은

시즌 후반 전남을 순위싸움의 복병으로 이끌며 박수를 받았다. 팀 안정화와 리빌딩에 성공한 전 감독은 7승 5무 3패의 성적을 내며 내년 시즌 희망을 남겼다. 전남은 안정적으로 팀을 꾸려가기 위해 검증된 전 감독에게 2020시즌을 맡겼다. 전경준 감독은 “올 시즌 많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선수들이 잘 따라주고 열심히 해준



덕분에 반동의 기회가 있었고, 팬들도 끝까지 응원해준 것 같다.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내년을 준비해야 한다. 올 시즌을 되돌아보며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선수 구성에서부터 동계훈련까지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꼭 좋은 성적으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축구 새로운 가능성 봤다

브라질과 친선경기 0-3 패...손흥민·김민재 등 침투력·중거리 슈트 위협적

한국 축구가 브라질의 벽을 넘지 못했으나, 의외의 경기력으로 기적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지난 19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모하메드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친선경기에서 0-3으로 패배했다. A매치 3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던 벤투 호는 이날 경기로 감독 부임 이후 A매치 최다 실점(3실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이 브라질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건 1999년 단 한번 뿐이다. 브라질은 강했다. 경기 초반부터 현란한 볼 컨트롤로 수비진을 뚫고 침투한 브라질은 로지의 크로스를 받은 파케타의 다이빙 헤더슛으로 전반 9분만에 골문을 열었다. 전반 36분에는 페네티 지역 왼쪽에서의 프리킥 상황에서 선보인 쿠티뉴의 오른발 감아차기가 절묘한 궤적을 그리며 조현우를 피해 골대로 빨려들어갔다. 후반 16분에는 로지의 낮은 크로스가 한국 수비수들 사이를 파고들었고, 이어지는 다닐루의 오른발 슈팅에 쇄골을 내줬다.

하지만 한국은 ‘강적’ 브라질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밀리지만은 않았다. 김민재, 주세종 등의 깊고 정확한 침투 패스와 상대 선수들을 제치고 파고드는 손흥민의 침투력으로 여러 차례 브라질 선수들을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한국의 위협적인 감각 중거리슛도 눈길을 끌었다. 전반 14분 손흥민, 후반 27분 김진수가 페네티 야크 바깥쪽에서 중거리포를 쏘았으나, 두 번 모두 상대 골키퍼 정면으로 향해 골로 연결되지 않았다. 후반 34분 손흥민은 센터 서클 바깥쪽에서 경기장을 가로지르는 기습 장거리 슈팅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한 발 느린 역습과 부족한 마무리가 발목을 잡았다. 전반 45분 빠른 침투로 역습 기회를 마련한 손흥민은 전방에 패스를 연결할 공격수가 없어 멈춰서기도 했다. 손흥민은 황희찬의 골 지역 앞 크로스로 마크 없이 골키퍼와 1-1로 맞서기도 했으나, 성공한 발리슛으로 기회를 놓쳤다. 이밖에도 여러 차례 브라질 골문 앞까지 다다른 불이 브라질 수비수의 커팅과 헤더 실수 등으로 골에서 멀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

토트넘 ‘스페셜원’ 무리뉴 감독 선임

손흥민(27)이 뛰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홉스퍼가 ‘스페셜원’ 조제 무리뉴(56·포르투갈)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토트넘은 20일 오후(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무리뉴를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구단이 밝힌 계약 기간은 2022-2023시즌이 끝날 때까지다. 토트넘은 성적 부진으로 이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47·아르헨티나) 감독과 코치진의 경질을 발

표하고 나서 바로 무리뉴 감독의 선임을 알렸다. 무리뉴는 지난해 12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 사령탑에서 물러난 지 11개월 만에 EPL 팀 감독으로 현장에 복귀하게 됐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은 “우리는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성공한 감독 중 하나인 무리뉴를 갖게 됐다. 그는 경험이 풍부하고 팀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훌륭한 전술가다. 우리는 그가 토트넘에 에너지와 믿음을 가져다줄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4위를 차지했던 토트넘은 이번 시즌 극도의 부진 속에 12라운드까지 단 3승(5무 4패)밖에 거두지 못한 채 20개 팀 중 14위까지 순위가 추락했다. 토트넘의 반동을 이끌어갈 무리뉴 감독은 23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EPL 1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 사령탑 데뷔전을 치른다. 무리뉴 감독은 구단을 통해 “좋은 유산과 열정적인 팬들이 있는 팀에 합류하게 돼 흥분된다. 수준 높은 선수단과 유스 아카데미도 나를 들뜨게 한다”면서 “이런 선수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매력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